프레스 노트

LUNKY CHARM

사무엘 알만사(Samuel Almansa) 개인전
갤러리 스탠, 서울
2025년 12월 19일 - 2026년 1월 11일

갤러리 스탠은 스페인 작가 **사무엘 알만사(Samuel Almansa)** 의 한국 첫 개인전 **Lucky Charm**을 개최한다.
이 프로젝트는 작가와 **갤러리 디렉터 송인지**의 대화를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격동의 시간을 지나온 서울에 긍정적인 시각적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빛나는 전시'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의도에서 출발했다. 그 과정에서 전시는 아시아 문화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행운'이라는 개념을 알만사의 동시대적이고 개인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알만사는 복주머니, 노리개, 해태 등 전통적 상징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어떤 물건이 부적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에 둔다. 작가는 특유의 둥글고 광택 있는 형태, 부드러운 모서리, 도자기를 연상시키는 표면감 등을 활용해 동아시아 시각문화와 가정에서 흔히 보이는 장식 오브제의 섬세함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이번 전시에는 여러 포맷의 **신작 12점 이상**이 소개되며, 행운을 우연이 아닌 '과정'으로 탐구한다.
알만사는 1년에 걸친 문화·색채·상징 조사와 중간의 휴지기, 재개 과정을 반복하며 한 가지 확신에 도달했다.

"행운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회화가 반복, 집중, 헌신을 통해 완성되듯 행운도 꾸준한 축적 속에서 생겨나지만, 동시에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규율과 유약함의 공존이 전시 전반을 관통한다.

물질적 메타포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품들은 도자기나 가마 소성물을 떠올리게 하는 견고하고 빛나는 외형을 띠지만,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질 수 있는 이중성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알만사는 이 긴장을 통해 삶, 창작 과정, 그리고 주변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기서 '깨지기 쉬움'은 결함이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내는 본질적 조건으로 제시된다.

전시 속 오브제들은 완성된 부적이 아니라 **'부적이 될 가능성'**을 가진 형태들이다. 각 작품은 색, 형태, 재료적 긴장, 재해석된 전통 등 상징적 구조를 제시하지만, 그 의미가 완성되는 순간은 관람자 또는 소장자가 자신의 해석을 더할 때이다. 즉, 행운은 약속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는 것'이며, 사물 안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생성된다.

Lucky Charm은 알만사의 문화적 연구, 재료 감각, 동시대적 태도를 결합한 전시로, 부적을 개인적 구성과 의미 생성의 장으로 제시한다. 부드러운 미감과 정확한 정서적 밀도를 지닌 그의 작업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사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PRESS NOTE

LUNKY CHARM

Solo exhibition by **Samuel Almansa**
Gallery Stan, Seoul, South Korea
19 December 2025 – 11 January 2026

Gallery Stan presents **Lucky Charm**, the first solo exhibition in Korea by Spanish artist **Samuel Almansa.** The project originated in a conversation between the artist and **Inji Song**, the gallery's director, and emerged from a clear intention: after a turbulent period, Seoul needed a luminous exhibition capable of activating a positive visual atmosphere. From that premise arose the concept of luck — a notion deeply rooted in many Asian cultures, which Almansa approaches from a contemporary and personal perspective.

Far from reproducing traditional iconography, **Lucky Charm** uses symbols such as bokjumeoni, norigae and haetae as a point of departure to reflect on what turns an object into an amulet. The forms are reinterpreted through the artist's characteristic language: rounded, glossy, soft-edged figures with a porcelain-like finish that echo both East Asian visual culture and the fragile decorative objects often found in family display cabinets.

The project brings together **over a dozen** works in various formats that explore luck not as something fortuitous, but as a process. Following an extensive period of research into culture, colour and symbolism — carried out over the course of a year, with pauses and later retomations — Almansa arrived at a clear certainty: **luck is not received, it is constructed**. Like a painting, it emerges from repetition, insistence and dedicated work, while always remaining exposed to the unexpected. This balance between discipline and fragility runs throughout the exhibition.

Material metaphor plays a central role. The works evoke porcelain or kiln-fired ceramics: resistant, bright, seemingly solid, yet capable of shattering with the slightest impact. In **Lucky Charm**, this duality becomes a key conceptual element: fragility is not a flaw, but the essential condition that gives something value. Almansa uses this tension to speak about life, the creative process and the ways in which we assign meaning to the objects that surround us.

The pieces are not conceived as closed amulets, but as **potential amulets**. Each work presents a symbolic structure — colour, form, fragility, reinterpreted tradition — that only becomes complete when the viewer or collector adds their own reading. In this project, luck is not promised: **it is activated**. It does not reside in the object, but in the relationship each person establishes with it.

With **Lucky Charm**, Gallery Stan presents an exhibition that brings together cultural research, material sensitivity and a distinctly contemporary approach. Almansa's work, marked by gentle aesthetics and precise emotional charge, positions the amulet as a space for personal construction and opens a conversation on how we assign value to objects in times of uncertainty.